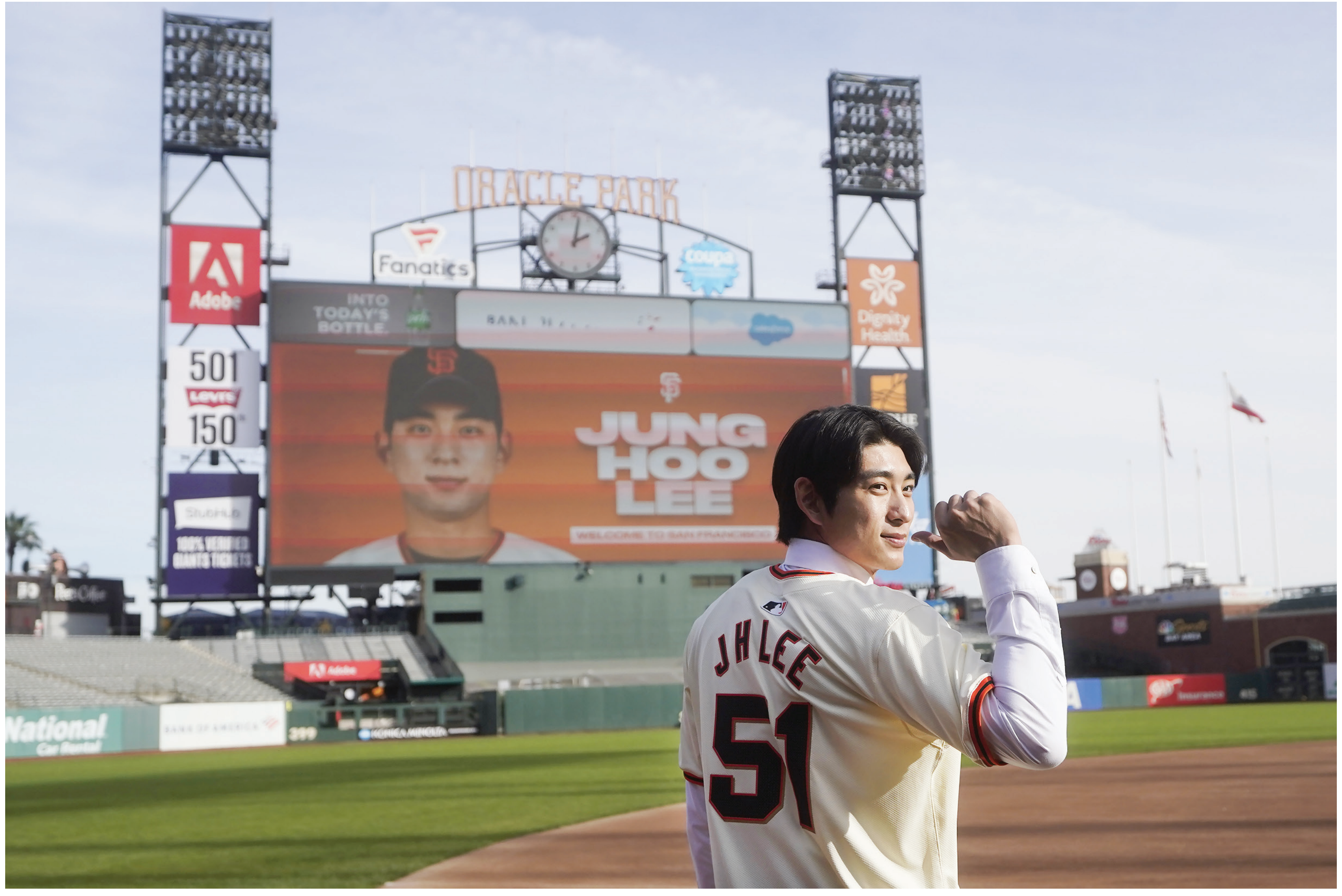
“SF, 이정후와 사랑에 빠질 것”…KBO리그 출신들이 예상했다

린드블럼 “18살 때부터 리그서 가장 뛰어나”

브리검 “적응 기간 필요하겠지만 정말 잘할 것’



이정후가 1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입단식을 마친 후 경기장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후는 키움 히어로즈 시절 쓰던 등번호 ‘51’이 새겨진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었다.

KBO리그 출신 외국인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입성한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성공을 예상했다.

디애슬레틱은 16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가 영입한 이정후를 전 KBO리그 외국인 선수들을 통해 분석했다. 두산 베어스에서 뛰었던 조시 린드블럼과 키움 히어로즈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제이크 브리검, 롯데 자이언츠 출신의 라이언 사도스키가 이에 참여했다.

2017년 이정후의 신인 시절을 떠올린 린드블럼은 “이정후는 만 18살 때부터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타격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인상적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타자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그의 타이밍을 흐트러뜨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안타를 많이 맞았고, 삼진을 빼앗기가 정말 힘들었다. 2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타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타자였다”며 이정후가 일본인 타자 스즈키 이치로와 비슷한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매체는 “이정후가 앞으로 수년간 샌프란시스코의 중견수 자리를 지키며 라인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 키움 동료들과 KBO리그 관계자들은 그가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키움에서 5시즌(2017~2021년) 동안 이정후의 동료로 뛰었던 브리검은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와 사랑에 빠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브리검은 “내가 키움에 입단한 첫 해가 이정후의 데뷔 시즌이었기 때문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고교 선수였던 그가 경기장 안팎에서 더 역동적인 선수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

“한국 야구와 선수들을 이해하려면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한 팀에서 리더 역할을 맡을 때 나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로 임했다. 19살 때부터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중요한 상황에서 큰 활약을 펼치며 팀을 더 나은 팀으로 만들었다”며 이정후의 리더십을 소개하기도 했다.

브리검은 “적응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잘할 거다. 올스타가 될 것”이라며 “재능과 추진력,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한국 경험이 많은 MLB 스카우트를 통해 이정후를 평가하기도 했다. 이 스카우트는 이정후에 대해 “오타니 쇼헤이, 애런 저지 같은 스타일은 아니”라면서 “뉴욕 메츠의 리드오프 중견수인 브랜던 니모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롯데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KBO리그의 외국인 스카우트로도 활동한 사도스키는 삼성 라이온즈 호세 피렐라와 이정후를 비교했다. “피렐라는 빅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타격이 가능한 선수로 지난해 이정후와 최우수선수(MVP)를 놓고 이정후와 경쟁했다. 이정후는 더 빠른 구속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면서 “이정후의 실력을 보면 다른 한국 선수들보다 더 빨리 (MLB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정후의 엄청난 인기도 샌프란시스코에 도움이 될 것이라도 봤다.

사도스키는 “이정후는 한국 TV에 매일 나올 것”이라며 “이 계약이 성사된 데에는 부차적인 이유도 있을 거다”고 예상했다. 한국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미다.

브리검은 한국에선 이정후와 저녁 식사를 하는 단순한 일에도 계획이 필요했다고 회상하며 웃었다. 브리검은 “가급적 프라이빗 룸을 예약해야 했다. 정문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에 내려줘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며 “‘신’이란 단어를 쓰고 싶진 않지만, 그는 그곳의 아이콘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라운드에서는 경기에 집중하는 선수였지만, 올스타전과 같은 다른 행사에서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팬들을 재미있게 하는 선수였다고 이정후를 떠올리기도 했다.

디애슬레틱은 “이 점이 샌프란시스코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다. 샌프란시스코는 라인업의 연속성이 필요하고, 공격적인 생산이 필요하다. 그들은 또한 시장성 있는 인기 선수가 필요하다. 팬들이 열광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다. 무관심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들은 ‘바람의 손자’에 큰 베팅을 했다”고 적었다.

양효진 1500블로킹 금자탑…男 범접 어려운 대기록

남자부 역대 최다 블로킹 득점은 1186점 신영석

프로배구 여자부 양효진(현대건설)이 통산 1500 블로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남자부 선수들도 범접할 수 없는 대기록이다.

양효진 소속팀 현대건설은 지난 16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여자부 원정 경기에서 정관장에 세트 스코어 3-2(17-25 20-25 29-27 25-21 15-11) 역전승을 거뒀다.

양효진은 이날 블로킹 3개 포함 18점을 뽑으며 승리를 이끌었다. 블로킹을 19번 시도해 3점을 뽑은 것 외에 7개 유효 블로킹으로 반격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정규리그 통산 블로킹 득점 1502점으로 남녀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1500점을 넘겼다.

그는 통산 480경기에 출전해 7265번 블로킹을 시도해 1502번 득점을 뽑았다. 이는 남자부를 압도하는 기록이다. 남자부 역대 최다 블로킹 득점 기록은 신영석(한국전력)이 수립하고 있는 1186점이다.

세트당 평균 블로킹 득점도 0.817점에 이른다. 정대영(GS칼텍스)과 김세영(은퇴)이 0.6점대 세트당 평균 블로킹 득점을 올린 것을 고려하면 양효진의 블로킹 득점력은 독보적이다.

상대 스파이크 위력을 반감시켜 역습을 돕는 유효 블로킹 부문에서는 양효진(2263개)보다 김수지(2945개)와 정대영(2475개), 배유나(2329개)가 앞서 있다. 이는 블로킹을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양효진의 감각이 뛰어남을 방증한다.

한 시즌 최다 블로킹 득점 기록도 그의 몫이다. 2013~2014시즌 118점을 블로킹으로 뽑았다. 배유나(한국도로공사)가 111점, 정대영과 한수지(GS칼텍스)가 110점으로 뒤를 잇고 있다.

한 경기 최다 블로킹 득점은 그가 블로킹 부문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기록이다. 김세영이 현대건설 시절인 2017년 2월 GS칼텍스전에서 13점을 올렸다. 양효진은 2020년 1월 KGC인삼공사(현 정관장)전에서 11점을 뽑아 역대 2위에 올라 있다.

연속 블로킹 득점 역시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 3연속 블로킹 득점으로 공동 2위에 올라 있다. 역대 1위는 유일하게 4연속 블로킹 득점에 성공한 시크라(한국도로공사)다.

블로킹 외에도 양효진은 프로배구 역사를 써내려가는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는 타점 높은 중앙 속공을 앞세워 7267점을 올려 남녀부 통틀어 역대 통산 정규리그 최다 득점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여자부 2위는 5791점을 올린 황연주(현대건설), 남자부 1위는 6599점을 뽑은 박철우(한국전력)다.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반려견도 소개… “까오도 함께 영입”

6년 1억1300만달러에 계약

지극정성을 보이며 이정후(25)를 붙잡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반려견까지 소개하며 ‘이정후 홍보’에 나섰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17일(한국시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정후의 반려견 까오의 사진을 여러장 공개했다.

구단은 사진과 함께 “이정후만 영입한 게 아니라는 것은 몰랐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정후도 “공유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까오는 이정후가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반려견의 이름이다. 까오의 SNS 계정을 따로 만들어 관리할 정도로 애정이 각별하다.

이정후가 까오를 안고 있는 사진에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우리는 이미 그들을 사랑한다”고 적기도 했다.

앞서 LA 다저스와 북미 프로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인 10년 7억달러에 계약한 오타니 쇼헤이도 반려견이 큰 관심을 모았다.

오타니가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했을 때 반려견과 함께 있는 모습이 공개됐고, 다저스 입단식 때 그를 향해 “반려견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오타니는 “데코핀이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발음하기 어려울 수 있다. 원래 이름은 데코이라서 사람들에게 부르기 쉽게 데코이라고 소개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는 오타니의 사례를 떠올리면서 이정후의 반려견을 따로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영입 전부터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피트 퍼텔라 샌프란시스코 단장이 이정후를 직접 보기 위해 올해 10월 고척을 찾기도 했다.

뉴시스

KIA, 미국 드라이브라인에 정해영·이의리 등 투수 파견

드라이브인 베이스볼센터서 선수 특성에 맞춰 맞춤 프로그램 소화

KIA 타이거즈가 17일 미국 드라이브라인에 선수와 코칭스태프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KIA는 미국 시애틀의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센터에 정해영, 이의리, 윤영철, 황동하, 곽도규 등 총 5명의 투수와 정재훈, 이동걸 투수코치를 보낸다.

이번 파견은 맞춤형 트레이닝을 통한 구속 증가, 구위 향상 등 선수들의 기량 발전과 코치들의 바이오 메카닉 등의 코칭 프로그램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수단은 오는 18일 미국으로 출국해, 2024년 1월20일까지 총 33박 34일의 일정을 소화한다.

첫날 바이오 메카닉 모션 캡처, 체력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선수 별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 설계되며, 향후 해당 프로그램 대로 일정이 진행된다.

미국 현지에 파견될 두 투수코치와 전력기획팀 데이터 분석원은 해당 자료를 스프링캠프 및 국내 훈련에 다각도로 접목시킬 예정이다.

KIA 심재학 단장은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자 이번 파견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도 선진 훈련 시스템을 잘 습득해 실제 훈련에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파견을 계기로 향후 더 많은 선수들에게 선진 야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팀 전력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